



전은 지역사랑봉사단, 지역사랑성금 전달

JB금융그룹 전북은행지역사랑봉사단(공동단장 박춘원 은 행장·정원호 노조위원장)이 전주 마음건강복지관의 시설 환경 개선을 위해 지역사랑성금 400만 원을 전달했다. 22일 열린 전달식에는 박한수 전주 마음건강복지관장과 오현순 전주시 노송동장, 정원호 전북은행노동조합 위원장, 노조 간부 오은석 전북은행 전주시청지점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지원은 복지관이 추진하는 '한전한 디딤'으로 이웃을 잇는 지역주민 소통 공간 환경개선사업 의 일환이다. 2005년 준공된 마음건강복지관은 시설 노후화가 진행되면서 2층 프로그램실 바닥재의 들뜸과 파손이 심해져 이용자 안전 확보와 시설 개선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지원금은 프로그램실의 기존 바닥재를 철거하고 새 데코 타일을 설치하는 데 사용된다. 이를 통해 복지관 이용회원 과 지역주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다양한 프로그램과 소통 활동을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오상근 기자



예수대, 무단 격포항 등서 환경정화 봉사

부안군은 예수대학교(총장 김찬기) 교직원들이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격포항과 번산리실길 일대에서 환경정화 봉사활동을 펼쳐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ESG 실천에 나섰다. 이번 활동은 대학혁신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된 직원 단체인수 프로그램에 봉사를 접목한 것이다. 예수대 교직원 30여명은 해안가와 탐방로를 걸으며 플라스틱, 페이퍼, 생활쓰레기 등을 수거하는 플로깅(Plogging) 활동을 실시했다. 참가자들은 무더운 날씨에도 구슬땀을 흘리며 해안 곳곳을 꼼꼼히 살펴 쓰레기를 수거하고 깨끗한 관광 환경 조성을 위해 한마음으로 봉사에 임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정읍 황도현농협, '농촌 왕진버스' 운영

정읍 황도현농협(조합장 유형기)은 지난 21일 정읍 국민체육센터에서 조합원 300명을 대상으로 '농촌 왕진버스' 사업을 실시해 농업인의 건강증진과 의료 복지 향상에 나섰다. 이번 왕진버스는 의료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농촌지역 조합원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대한의료봉사회, 연세대 스포츠 재활연구소, 더스토리안경원 등 약 50여명의 의료진이 양방진료, 근육결핵질환관리, 검안 등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돌봄기 및 영양제 등 다양한 물품을 참석한 조합원에게 제공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전북 안실단, 대규모 안전문화 캠페인

전북지역 안전문화실천추진단(안실단)이 전북도민과 함께 여름철 안전의식 확산과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대규모 합동 안전문화 캠페인을 펼쳤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전북지역본부(본부장 홍장표)는 지난 21일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안실단 1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지역 맞춤형 안전 문화 정착을 위한 합동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정부의 국정과제인 '일하는 모든 사람이 건강하고 안전한 나라'를 지역사회에서 실현하고, 폭염과 온열질환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도민들이 많이 찾는 스포츠 경기장과 연계해 친근하고 체험 중심의 방식으로 안전문화를 확산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안실단은 경기장 동측 광장에 홍보부스를 설치하고 노동 안전 슬로건 퍼즐 맞추기, 개인보호구 체험·전시, 자동심장충격기(AED) 사용법과 심폐소생술(CPR) 실습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관람객들은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직접 참여하며 안전수칙을 자연스럽게 익혔다. 이번 행사는 전북 대표 스포츠 구단인 전북현대모터스의 협조 아래 진행됐다. /오만호 기자

지역 필수·공공의료 발전 지원

소재철 장한종합건설 대표
전북대병원에 발전기금 기탁
의료 인프라 확충에 힘 보태

전북대학교병원이 장한종합건설 소재철 대표이사로 부터 지역 의료 발전과 병원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발전기금 5,000만원을 전달받았다. 전북대학교병원(병원장 양종철)은 장한종합건설 대표이사이자 대한건설협회 전북특별자치도회 제28대 회장인 소재철 대표가 발전기금 5천만원을 기탁했다고 22일 밝혔다. 기탁식은 병원 본관 3층 은고을홀에서 양종철 병원장과 이상록 대외협력홍보실장, 김소은 대외협력홍보부 실장 등 병원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소재철 대표는 건설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해 왔으며, 대한건설협회 전북특별자치도회 제28대 회장을 맡아 지역 건설업계를 이끌고 있다. 또한 전 북육상연맹 회장과 대한적십자사 고액기부자 모임(RCHC) 회원으로 활동하는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펼쳐 지역사회 발전에 앞장서고 있다. 이번 기부는 전북지역 거점 국립대병원인 전북대병원 이 보다 나은 의료환경을 조성하고 지역 필수의료와 공공의료 기능을 안정적으로 수행하는 데 힘을 보태기



위에 마련됐다. 소재철 대표는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며 지역 보건의료의 중심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전북대병원에 감사드립니다" "기탁한 발전기금이 의료 인프라 확충과 의학 연구 발전의 밑거름이 돼 도민들에게 더 나은 의료서비스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양종철 병원장은 "지역 의료 발전과 병원의 도약을 위해 뜻깊은 나눔을 실천해 주신 소재철 대표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기탁금은 환자 중심의 최첨단 시설 확충과 지역 필수·공공의료 체계 강화 등 병원의 핵심 발전 분야에 투명하고 내실 있게 사용돼 도민들이 더욱 신뢰하고 안심할 수 있는 병원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고 밝혔다. /오상근 기자

조지훈 전주시장, 일곱째 출생아 가정 찾아 축하·응원

부모와 양육 과정 어려움도 청취

조지훈 전주시장이 아이 키우기 좋은 전주를 만들기 위해 최근 일곱째 자녀가 태어난 가정을 방문해 출생을 축하하고, 다자녀 가정의 양육 여건과 애로사항에 귀를 기울였다. 조지훈 시장은 22일 저출생 극복과 가족 친화 분위기 조성의 일환으로 출생아 가정을 직접 찾아 축하 인사를 전하고, 꽃다발과 친필 축하카드를 전달했다. 또 부모와 한담을 나누며 양육 과정의 어려움을 청취하고, 출생·양육 정책에 대한 의견을 나누기도 했다. 이날 방문한 가정은 지난날 28일 일곱 번째 자녀가 출생하며, 현재 부모와 형제자매를 포함한 9인 가족이 생활하고 있다. 이에 시는 이날 다자녀 가정의 양육 부담을 덜기 위한 생계·주거·교육 분야 지원사업을 안내했다. 주요 출생·양육 관련 지원사업은 △출생 축하금 및 자녀양육비 지원 △친환경 천기저귀 지원 △첫만남이용권 지원 △부모급여 △아동수당 △셋째아 이상 육아용품 구입비 지원 등이다. 시는 아이를 낳고 키우는 가정이 지역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인구정책의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판단, 이번 일곱째 출생기정 등 실제 양육 가정의 목소리를 향후 정책 추진 과정에 적극 반영해 시민이 체감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조지훈 전주시장은 이날 "일곱째 아이의 탄생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아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애써주시는 부모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면서 "아이들 낳고 키우기 좋은 전주를 만들기 위해 출생·양육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오만호 기자

‘이웃살림 맞춤 가사지원’… 고창군, 통합돌봄 협약 체결

한사랑노인복지센터와

고창군이 22일 군청 2층 1회의실에서 한사랑노인복지센터와 통합돌봄 지역특화서비스 '이웃살림 가사지원 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돌봄 체계를 강화하고, 돌봄이 필요한 군민에게 맞춤형 가사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웃살림 가사지원 사업'은 총 사업비 2억1,600만원을 투입해 통합돌봄 대상자에게 청소, 세탁, 식사 준비 등 일상 생활에 필요한 가사지원 서비스를 1일 최대 2시간, 연간 최대 180시간까지 지원한다. 고창군은 지난 6월 수행기관 공개모집과 7월 선정심사위원회 거쳐 전문성과 수행역량 등을 종합 평가한 결과, 한 사랑노인복지센터를 수행기관으로 최종 선정했다. 또한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저점기관과 참여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대상자 발굴과 서비스 연계, 사업 운



영 등을 유기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앞으로도 지역 특성에 맞는 통합돌봄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촘촘한 돌봄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남원자봉센터, 2026년 여름철 안전·빗물받이 환경정화 캠페인

남원시자원봉사센터가 여름철 재난 예방과 시민 안전의식 제고를 위해 지난 9일부터 관내 전역에서 2026년 여름철 안전 및 빗물받이 환경정화 캠페인을 전개한다. 이번 캠페인은 행정안전부의 여름철 자원봉사 집중기간' 운영에 맞춰 마련됐으며, 다양한 지역 봉사단체들과 협력해 장소별 맞춤형 활동으로 진행된다. 먼저 지난 9일과 10일에는 성원고·남원고 학생들과 함께 방학 맞이 물놀이 안전수칙 홍보 영상을 제작했으며, 이어 15일에는 모범안전자회 남원시지회와 축천교 사거리에서 폭염·집중호우 대비 교통안전 캠페인을, 18일에는 자율방범대와 지리산 뱀사골 계곡에서 피서지 안전수칙 안내 활동을 펼쳤다. 특히 지난 20일에는 사랑클럽, 적십자봉사회, 청년도전지

원사업단, 120원봉사대 등 3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구제일은행 사거리 일대 빗물받이 환경정화 활동을 실시,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피해 예방에 힘을 쏟았다. 센터는 이어지는 여름철 재난에 대비해 오는 20일 의용소방대연합회와 전기안전 캠페인(도봉동 우체국 사거리)을, 내달 4일에는 시민경찰연합회와 온열질환 예방 캠페인(공설시장 일원)을 지속 추진한다. 센터 관계자는 "폭염과 집중호우 등 여름철 위험 요인이 증가하는 만큼 생활 속 안전수칙 실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봉사단체와 협력해 시민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예방 중심의 활동을 이어가겠다"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의료원, '찾아가는 행복 만리길' 펼쳐

남원의료원(원장 오진규·사진)은 순창군 금과면 생활체육관에서 지역 주민 90여 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행복 만리길' 의료서비스 지원 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 활동은 순창군 금과면 및 전북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과 연계해 추진된 '찾아가는 행복 만리길' 사업의 일환으로, 복지서비스 접근성이 떨어진 농촌 지역을 직접 찾아가 주민들에게 의료 상담, 문화, 여가 활동 등 종합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취지로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서 남원의료원 전문의와 간호사 등으로 구성된 의료진은 주민들을 위한 진료 및 영양 수액 투여 서비스를 제공했다. 오진규 남원의료원장은 "지속되는 장마와 무더위로 지치고 만성질환 등으로 건강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 주민들에게 건강 돌봄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어 기쁘다"라고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농촌지도자 남원연합회 등, 지역 농특산물 기탁

남원시(시장 양종모)는 22일, 농촌지도자 남원시 연합회와 생활개선 남원시 연합회 회원들이 직접 생산한 지역 농특산물 56점(한가예 170만원 상당)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기탁되는 56점의 농특산물은 남원지역 읍면별 농가들이 자발적으로 뜻을 모아 준비한 것으로, 지역 내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전달되어 운가를 더할 예정이다. 연합회 관계자는 "우리가 흘린 땀방울이 지역 이웃들에게 작은 힘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따뜻한 농업인 단체가 되겠다"라고 전했다. 양종모 남원시장은 "오늘 기탁해 주신 56점의 농특산물은 단순한 농산물을 넘어 우리 남원 농업인들의 따뜻한 마음이 담긴 선물"이라며, "남원시 역시 농업인의 땀과 노력이 제대로 인정받고, 지속 가능한 남원 농업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행정적·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아희뜰어린이집, 남원 금동에 이웃돕기 성금 기탁

남원시 금동 관계자는 아희뜰어린이집(국공립)에서 원아와 학부모, 교직원이 함께한 아희사랑 이웃사랑 돕기 활동(지난 15~20일)을 통해 마련된 성금 21만 5천원을 기탁해 왔다고 전했다. 아희뜰어린이집 관계자는 "아이들이 아희사랑 이웃사랑 돕기 활동에 참여해 자원의 소중함을 배우고 나눔의 기쁨도 함께 경험할 수 있었다"며 "작은 정성이지만 어려운 이웃들에게 따뜻한 마음으로 전달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영미 금동 동장은 "원아와 학부모, 교직원이 함께 마련한 뜻깊은 성금을 기탁해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며 "소중한 성금은 기탁해 주신 따뜻한 마음을 담아 금동 주민을 위한 복지사업에 일차게 사용하겠다"고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정읍교육지원청, 직원들과 소통의날 행사 열어



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최용훈)은 22일 청사 1층 생공카페에서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상호존중·소통의 날 행사인 '소통 한 잔'을 운영했다.

'소통 한 잔'은 지난 6월 11일 직원들이 부서와 팀별로 편안하게 대화를 나누는 자리로 처음 시작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교육장이 직접 커피를 내리며 직원들과 격의 없이 대화하는 시간을 가졌다. 직원들은 부서와 직급에 관계없이 한자리에 모여 서로의 안부를 묻고 업무와 일상에 관한 이야기를 편안하게 나눴다. 정읍교육지원청은 앞으로도 부서 간 교류와 협력을 활성화하고, 상호존중과 청렴이 일상에 자리 잡는 조직문화를 조성할 계획이다. 최용훈 교육장은 "정직한 조직문화는 서로를 존중하고 편안하게 대화하는 일상에서 시작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방식으로 소통의 기회를 넓혀가겠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 기자